

# 학생회보

제 4호    워싱턴주 한국학생회    1973년 4월  
SMITH HALL Rm 31, UW

四  
一  
九  
特  
輯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四一九 精神! 어저고 저저고 하면  
실感도 안나고 괜히 부끄러워 진다.  
그날 우거진 숲속의 숲을 맨살로 헤치며  
獨裁의 울타리를 향해 파도치다가  
한 발의 총알에 죽었어도  
오늘 다시 살아나서 생각하면  
괜히 부끄러워 질 것인가?

그날 총알이 나를 피해 달아나서  
내 그날 숨을 거두지 못했지만  
그 총알이 한 없이 원망스럽지만  
미꾸라지 습주에 젖어서  
미끌 미끌 오늘까지 땀 흘리며 기어왔다.  
그래도 멧힌 恨은 여직 남아 있어서  
들끓는 눈물을 하늘에 뿌리며  
수우리를 찾아간다.

(趙泰一의 四一九 추도 詩 중에서)

설세대를 맞은 4.19. 4.19의 평가와 정의야 어떻든간에 우리의 민족주의 역사  
 기 있어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운 4.19는 사적무실한 세월속에 하나의 역사적 기적  
 으로 떠올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세대에 따라 나이에 따라 4.19를 느끼는 감각은  
 제각기 다르겠으나 이같이 되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주먹이 쥐어지는 것은 비단  
 우리가 아직도 학생이라는 이유 때문만은 아닐것이다. 다른차원에서 이역사적인  
 사실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 이번호에 4.19 심포지움을 구성해보았다.

4.19 - 그 상징적 가치

서 진영

4.19는 「카발레론」과 같이 되었다.  
 그것을 意識하는 사람들이기는 무엇이든지  
 할수있는것같이 되어버렸다. 그래서인지 흥사  
 정치인의 4.19가 떠오르는가 하면, 학자들의  
 4.19가 있고, 「4.19 世代」의 4.19가 있는  
 가하면, 대중들의 4.19가 있는 그야말로  
 万人의이위한 万人의 4.19가 있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던것같이 되어버렸다.

제가 되면 할연석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야기되면서도 너무 많은 「이야기」의 혼란  
 속에서 4.19의 의미가 서서히 잊혀간다는  
 이상한 「파라독스」가 생겼되었다.

1편 「파라독스」는 4.19를 「상징」  
 하려고 할때 생기는것같다. 상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4.19는 그 상징의 바탕 - 다시  
 말하자면 함의적인 대상을 근거로 얻은 자신  
 들의 입장을 통해서 그것 「해석」 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많은 얼개를 갖게 마련이다.  
 그러나 느낌을 통한 4.19는 비교적 단순한것  
 같다. 어떤사람들에게는 4.19는 그들의  
 무기과 권력이 무더러한 학문과 같을수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화같은, 신상과같은

어떤 용어적인 공과같은 것일수도있다. 그것이  
 두려운것이면, 간직하고 싶은것이면 4.19의 여력은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불러 일으켜준다는 그 상징  
 속이 들어있다.

우리는 어떤식이건 상징의 서계속에서 살고있고  
 어떤의어에서든 어떤의 상징이 「政治的」이라고  
 할수있다. 왜냐하면 정치권력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권력을 보호하고 확충하기 위해서, 때로는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떤 권력이  
 반대하기 위해서 상징이 창조되고 이용되지만,  
 4.19의 상징적가치는 그것이 「정치적」으로 될수  
 없라는데에 그 역량이 있는동시에 그 강령이 있는것같다.  
 4.19를 어떤 특수한 의미로 보기, 이를하면 자유  
 민주주의라든가 하는를 속에서 규정할수없고, 또한 어떤  
 특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집단에 의해서 「所有」될수  
 없었던것에서 4.19의 상징으로서 가치가 있는것같다.  
 4.19가 누려졌던 될수없기 때문에 「보통」받을수 없지만  
 반면에 「연습」되거나 「타락」 될수없다는 강령도 있다.  
 때문에 그 상징으로서의 순수한 가치를 먼저까지나  
 보아야할수있고, 언제나 어떤사람이건 그것을 갖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저항의 정신과 무정의 기운과  
 그리고 대중의 힘에대한 상징이 될수가 있는것이다.

4.19의 가치는 그 「前政治的」인  
 소모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성공했다는 점에서  
 수많은 다른 항거운동과 구별될수 있을 것 같다.  
 소위하나 근본적인 항거운동은 많이 있었지만  
 그 정치적인 좌절로 말미암아 역사속에서 조곤  
 되기가 쉬웠지만 4.19의 정치적 성공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4.19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으며, 4.19를 특수한 환경이  
 여한 항거운동에서 일관적인 저항정신의 상징  
 으로 고양(高揚)할수 있게 했던 것이다.

무엇이 여한 저항이냐, 어떤것을 부정  
 해야 하는냐 하는것은 역사적인 상황과 개인적인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만일 항거해야 할  
 것이 있다면, 부정해야 할 것이 있다면 4.19는  
 상징으로서 그 가치를 가질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대체로 순응의 습관속에서 살고 있다.  
 질서와 안전만이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든것  
 이라면 지극순응의 문화는 모든것을 고착  
 시키고 은근화하겠지만 역사는 항상 사물의  
 저항정신이 의해서 단순화겠지만 근본적인 회의  
 로부터 변화되어왔고 또 역사가 진보되었다면  
 그 진보를 가려온것은 바로 그 현실에 대한 부정  
 으로부터 출발했다는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이다. 4.19 상징은 그것이 어떤 정치적  
 실체로써 부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대로 남아서 기본적인 항거의 가치를 보여  
 주는 점에서 어떤 이데올로기보라든 강력한  
 호소력을 가질수 있고 또 무한한 포용력이 있다.

서면 사회건 어느사대건 거기에는  
 저항의 상징이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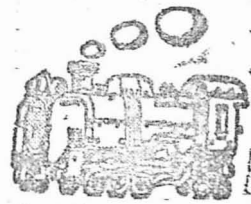
결사의 속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질서를 추구했다면  
 4.19는 우리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드문 항거정신의  
 상징으로써 그 가치가 있고 그렇기때문에 4.19는  
 모든 사람들이 평가하려 하면서도 단순한 감정  
 반응을 일으키는것 같다. (정치학과)

(11 페이지의 계속)

허망한 여자뿐이었다. 하기가 처녀가 애기를  
 배는 할말은 있는 법이고, 아녀 할말이 더 많  
 아지는 법이라더니 공연히 취소된다는 형편도  
 많았을끼고 하질말씀도 많았으리라 믿어져 이를  
 청하려는 마음은 후회도 없으나, "그런걸 왜  
 진상 쯤 시간 에라고 나리야 말러 주지 못  
 했을꼬 .... 삼일절 기념식은 해괴 망측하  
 게 또 무슨 기념식" 숙으로는 야동하고  
 영계은 감정만 남긴채 발길을 돌리니 발  
 은 이미 야심하여 송곳없는 두견사살  
 살개 살기 무노메라.

하사 외국의 친구들이나 Host family가  
 지 용원하났다가 "국제 망신의 밤"을  
 즐겨야 했던 어떤 병영은도 입 한번 쾅긋  
 안하고 참아가며 사는데 위 그의 새삼  
 스럽게 큰 권이로 만났것 처럼 그날하  
 권에 옥팔은 권려 장안의 순회편을 문  
 리어= 남고 편장은 편우면 그 역시 할  
 말은 없었다.

사람들의 강게와는 처음부터 버지수가 다른  
 이야기니까 ..... (약학과)



四.一九 世代論  
— 그 虛構의 意味

崔率元

어느 혁명에도 主體勢力이 있다. 만일 확고한 歷史的 判斷力을 지니고 해결의 서광이 쉽게 보이지 않는 복잡 혼미한 現實을 實事의 必然적인 과정으로 이끌어가는 조직된 세력을 빼놓는다면, 歷史上의 중요한 轉機들은 대부분 우발적이었거나 혹은 당연히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식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혁명 세력의 등장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즉 한 혁명의 成敗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革命 運動의 傳承과 新 體制의 現實적인 成果가 論해져야 하며, 이 점에서 문제는 그 主體 세력의 등장뿐이 아니라 그 變遷의 역사 — 투쟁, 타락, 희망을 포함한 — 로 向한다.

분명히 四.一九는 학생이라는 특수한 계층을 중심으로 전구민이 渾然一體가 되어 독재를 무너뜨렸던 民主的 暴動이었다. 그렇기에 그 運動이나 主體 세력의 지도원칙에 대하여 하등의 異議도 있을 수 없었다. (말하자면 佛 혁명의 「며이크」나 러시아 혁명의 「루셀부르크」 같은 비평가도 있을 수 없었다.) 따라서 비록 四.一九가 구체적 의미보다는 상징적 의미속에 史의 痕跡으로 매몰되어 가는 과정속에서도, 우리는 흔히 四.一九를 겪었거나 이에 참가했던 학생들을 소위 四.一九 世代라는 이름속에 등칭하고 있다.

그렇다면 혹은 좁은 의미에서 이제는 사회인이 된 그 당시의 士役들, 그리고 넓게는 四.一九의 체험을 보다 생생히 가지고 있는 一世代,

소위 四.一九 世代의 오늘에 보는 의미는 무엇인가? 四.一九가 우리의 史속에서 갖는 정확한 位置를 定하기 위해서도 그들이 하나의 世代로서 共有하고 있는 主體이나 意識에서의 同質性 — 다시 말해서 환상과 기대를 가지고 불러워지는 이들 四.一九 世代의 과장없는 寫像이 이 時점에서 再考되어야 할지 모른다.

元來 학생이 主體 세력이었다는 事實은 四.一九를 계속 推進해나갈 조직된 세력과 구체적 理想의 면에서 그 主體적인 한계를 말해줄 수 있다. 학생 세력은 그 성취상 政權을 掌握할 수도 없었은뿐 아니라, 최소한 象徵으로서의 四.一九를 觀望해나가는 데도 적지 않은 難點을 가진지 모른다. 四.一九 직후 제각기 正統을 주장하면서 雨後 주승처럼 솔하게 등장했던 似而非 四.一九 단체들의 戰國時代, 오늘에는 四.一九 世代를 代表하며 既存 體制가 바꾸어주는 몇자의 代表(?)의 呼聲을 應징하고 있거나 혹은 그 世代의 역사를 代價하여 行幕에 捲인됨을 悲는 「四.一九 칼렌트」들의 例는 이같이 뚜렷하지 않은 四.一九 세력의 性格에서 초래된 결과일지 모른다.

여러분 근근히 延命하고 있는 四.一九의 상징적 의미나마 순수히 보전하기 위해서는 一羣의 「四.一九 賣名者」들을 중심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四.一九 世代라는 말은 분식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자못히 당연하다. 사실 四.一九 世代라는 말은 四.一九 세력의 성격 자체에서 그리고 구체적인 集團으로

형상화 하고 유지될수 없다는 점에서 그 광범한 세력 (실재적이면 잠재적이면) 을 지칭 하기 위해 사용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四·一九世대를 보다 넓게 사용할때 부수되는 一種의 期待—즉 四·一九와 같은 경험을 겪은 한세대는 보다 뚜렷한 民主的 가치를 간직하게 될것이며 후에 이들이 社會를 이루는 指導세력이 되며 政治的, 社會的 면에서 全權적 改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은 불행히도 그렇게 신뢰할수 있는 것은 못된다. 우리가 흔히 목격하는 바 처럼 既在 社會의 慣行 위에서 지반바 무도 (혹은 理想?) 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찾는 사고방식은 흔히 市民的 實踐감과 機能工的 努力의 甘受로 연결되고 만다. 이점에서 소위 四·一九世대도 예외는 아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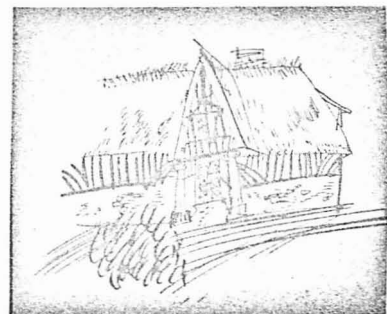
勿論 悲觀的인, 그리고 나아가 전혀 宿命的인 結論을 내리려고 하는데 이들의 本의도가 있지는 않다. 또 遠斷을 하기에는 시기가 이른지도 모른다. 오히려 四·一九를 중심으로 조성되어야 했을 民主文化의 발전 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한 여러가지 이유들이 우선 검토되어야 할것도 같다. 그러나 오늘 더욱 필요한 것은 四·一九世대 스스로의 생활한 자기인식과 비판인 것이다.

우리가 四·一九를 맞이 하면서, 우리의 짧은 民主운동 역사의 귀중한 里程碑로서 四·一九 이념의 뒤색은 아쉬워하고

그 상징적 의미를 간직하려고 할때 四·一九世대는 그 遺産을 繼承하는 상징적 存在로서 부각된다. 여기에서 四·一九世대에 대한 注意를 깨고 보다 明確한 定義가 더한층 요구되는 것이다.

오전과 그 뚜렷한 성격 (자금이 보는) 이 규정되지 않고, 흔히 「살아남은者」가 「죽은者」들의 遺産을 일삼고, 그뿐만이도 「造花」가 「生花」를 剽竊하고 있는 상에서 四·一九世대 定義의 明確을 더할뿐이다.

혹시 良心이라도 어떤 使命感이나 感傷的 基調에 걸을수도 있고, 혹은 최소한 知的 「마스터베이션」의 구실을 하는데서 의미를 지보지는 모르나, 이러한 허방한 基調이나 하고 흔히 모용되는 四·一九世대論은 보다 순수한 뜻은 유지하기 위해서도 차라리 芟削되어야 할것도 같다. (政治學科)



# 4.19와 학생 의거

## 송근기 (政治科)

韓半島와 같은 發展 途上의 나라에서는 가장 重要한 要件이 政治安穩이다. 政治安穩이 있고 난 후에야 民族 奮興이나 産業 開發이나 등 많은 다른 要件들이 社會 發展을 爲해 기여 될 수가 있다.

政治安穩을 爲해서는 아마 다음 세가지 要件을 必要로 하는 것 같다. 첫째는 Charismatic 한 leadership 을 必要로 하고, 두째는 政黨이나 또 내각 혹은 대통령 책임제 같은 政治체제가 安穩되어야 하고, 셋째는 國民들의 政治 참여 精神이 發達하여야만 되는 것이다.

政治安穩이 없으면 社會가 불안하기 마련이고 革命의 경우로 혁명이나 의거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혁명이나 의거라는 건 政治와 가장 緊密한 關係가 있다. 다시 말하면 軍인이나 노동자의 입김이 적다든가 교육제도가 나쁘다든가 하여 혁명이나 의거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혁명이나 의거가 政治와 直接되는 單據라 하더라도 그 實質的인 뜻은 또 상당히 다르다. 혁명은 武力을 수단하고, 最終 目標 달성을 政權에 두며. 혁명을 하는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은 보면 최고 지식층 으로부터 전혀 교육은 받지 못한 사람까지 가지각색이다. 의거라는 건 武力을 수단하지 않으며, 最終 目標 달성을 政權에 두는 것이 아니라 社會 부패상이라든가 社會악 體제를 爲해 爲해 권을 권하는데 그치며, 의거를 하는 사람은 社會와 隔이 intellectual 들이고 더 자세히 말하면 이들은 intelligentia 라고 한다.

美例를 하나씩 들면 軍사 혁명. 노동자 혁명. 농민 혁명에 學生 의거라는 것이 있다.

軍인이나 노동자 들이나 농민들에게는 혁명이라는 것이 있고 때로는 봉기나 폭동이라는 것으로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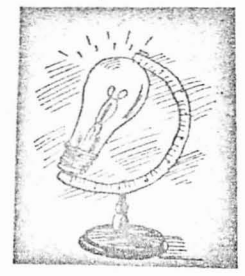
학생들에게는 의거가 있고 혁명이라고는 그러지 않는다. 따라서 4.19가 학생 의거지 학생 혁명이 아니라고 주장이 된다.

혁명이 실패 하면 반역이 되나 의거가 실패 하더라도 반역은 되지 않는다.

4.19 學生 의거와 政治와 어떤 關係가 있었느냐 하면 그 性質은 분명해진다. 政治가 安穩 되지 못하여 社會 질서가 무너지고 社會악의 일종으로 부패가 極에 달하여 學生이 권을 권한 것이다.

政權을 要求 한 것도 아니고 사전 革命 計劃과 뒤어난 지도자가 있어서 그 뒤를 따르는 것도 아니다. 社會가 腐敗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知識者들에게 보여준다.

4.19 의거가 비록 政權을 目標로 둔 것은 아니었지만 그 結果는 政權 變換을 초래 하였는데 이면 역시 政治가 安穩되지 못한 根本的인 原因으로서 이미 언급한 세가지 요소 때문이다. 그런데 政權을 目標로 하지 않고 自發적으로 된 學生 의거라지만 4.19 結果로 하루 아침에 政治체이 된 學生이 많다. 이들이 의하면 4.19가 의거 이상으로 政權을 目標로 한 것처럼 학생 혁명으로 자주 언급이 된다. 그러나 政權을 目標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政治에 개입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學生의 本意로 돌아간 많은 學生들에게는 의거라는 것이 더욱 더 명백하다.



# 4.19 소묘 : 학자님들이 왕하는 여기

## 장 신 자

그날 어찌 어찌 하다가 적선능은 지나 호  
 자능까지 가져 보고 있노라니 무서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때 나는 구경을 하고 있  
 었는지 아니면 도망 갈 길을 찾고 있었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으나 아마 성공했던 것  
 같다. 갑자기 군중이 뒤로 밀리게 시작하고  
 흉쇄가 들었는데, 바나나 가로수의 나무가지  
 가 툭툭 부러지고 있었다. 우수광스러운 정  
 도로 몇 권좌가 넘어져 버리고 뒤미쳐 엎어져  
 서운차, 연세차의 활옷 입을 여과대학생들이  
 부상자를 들것에 싣고 나가고 있었다. 아차  
 이것은 공포에 어찌구 실에서 도망 갈 길을  
 찾다가 흉구앞에서 차를 돌려 뛰어 도망 가는  
 것은 어찌구 실이 드. - 을 부른이 어느  
 짐 달장을 뛰어 넘어 신라달라고 애원하  
 였다. 초사이 어찌구 친절하게 숨겨주던지  
 두고 두고 잊을 수가 없다. 내위에 찢아 숨은  
 여러 학생을 덮은 뒤미쳐 돈 흥분본들  
 에게 맞아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쪽 자리는 잘 아는 편에서 근육으로  
 바쳐서 씨 시형 알 광장이라 구경(?)하  
 고 있었다. 자음 공보관 이된 자리에  
 파출소의 순경 두분이 있었는데 많은 군중  
 이 돈을 던져 뛰어 나오게 만들고 선  
 짐승들이 한껏 끌었는데 함부로 소공물  
 쪽으로 함부로 넘어온 쪽으로 뛰어 뒤에  
 사람들이 소나 소나 지르며 어리러 있었  
 다. 변한 권좌의 소음이 기렸나.

교수님들의 야간 피로, 쉼, 제법  
 냉등 이수선 하며 여권이 지나 26일이  
 되었다.

그날 광화문에는 온 시민의 피로가 있어서 반  
 은 휴전 틈이 났었다. 한편이면 그날 지  
 금은 이음도 맞은 한 여성과 광화문의  
 야 지방에서 인생 처음으로 테이크아웃  
 은 하고 시안 맞추기 바나나 그 지경이  
 었다. 아차이 현, 넘치는 권좌들이 총알사  
 동상은 새끼처럼 매에서 진진 끌고 오고 있었다.  
 지나온 흥분이나 실렸는데 변의 그윽그윽  
 은 것은 자모의 천 시간의 그장면이 화면  
 이 나뉘어진 권좌 들었다. 제각각의 한  
 권좌는 마나 아무래도 이번의 심상치 않아  
 정권이 무너진 것 같으나 그권좌는 어찌 생각  
 했는지 권좌의 권좌임을 잊을 수 없다는 주장이  
 었다. 야기 드를 안 바나 그권좌 권좌의  
 는이 당시 자모의 구화외로 이시었다. 너무 논쟁  
 이 심해져서 결국 주먹구먹이 한 끝은 밋  
 었는데 흥분서 뻘뻘한 한강에서 눈흔이 되고  
 그날 너의 심정이 좀 그럴듯할 수 밖에 없었  
 다. 소위 그 4.19 이거후 많은 학생들이 나  
 취임 좀 무뎠은 기분이었나 보다. 사나같이  
 흥분하는 주먹구먹 한 사공 한사람의 조크에  
 라 권좌는 이구이 중은 반구로 어찌나 지  
 켜나 하는데 나도 바로 그 한사람의 역할은  
 했나 실이 (심은 구경 안 바나) 흐뭇했었다.  
 어느 강의실에서 한 교수님이 그와같은 나를  
 쳐우려 주신셈이다. 구경이나하며 따라와  
 나니 권좌들이 어마 어마 한 양이 이루어  
 지고 내 본론 착각을 한 것이고, 사실  
 흥분 만음 이시었다. 하지만 이와같은 착각  
 중상을 가진 이거 그때나 나 뿐이 었은  
 까? (교육학과)





# 전공 순례 ④

(도시 계획학)

소대성

## 代案의 原理

(The Notion of Alternative)

복잡한 세상이라 사람들은 간단한 것  
을 좋아하기 마련. 책을 읽어가며 점차  
복잡해지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해 두기  
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특히 짧은  
영어로 말이다. 그래서 이 책은 읽으며  
글자가 되는 용어(단어)에 손을 치는 것이  
한 바릇이라기 보다 어떤 개념을 기억하는  
한 모령이 될 것이다. 이름의 연역적 개념  
에 익숙되어 온 것일까? 그동안 인상이  
있었던 용어 代案(alternative)을 잠시  
문이하므로 외치의 느끼는 바를 나누기 바  
라노 것이다.

도시 계획에서 代案의 原理는 필로  
하라고 불가리한 것으로 보아야겠다. 도시계  
획은 참으로 광범위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수학에서 多解 多수해라고 불리듯처럼  
자연과학은 대개가 單解에 국하여 인간  
사회의 社會체는 多解 혹은 代案의 원리  
를 통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것은  
시공간의 제약은 받는 물질세계의 介入성  
의 原理를 초월하여 인간 개개인의 가치  
관의 可能性과 多面성을 포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planner는 한 면에만 침착되어 있  
는 specialist라기 보다 synoptic view를  
지닌 "dilettante"이어야 한다는 Blamen-  
feld(도시 계획가)의 말에 공감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 저것 조금씩 하나뿐 dilettante

의 유능한 planner가 되느니 사부하기 보다  
나뭇 밭으로 넓게 넓게 혹은 "Master of  
all is master of none." 격의 "사부카"  
가 되는 기분이어서 自信이 더 없어지는  
느낌이다. 하여간 여러분야에 조금씩 정통  
하다보니 자신의 어떤 specialist적인  
편견이 많이 둔화되는 느낌이라 남의 의견에  
혹은 代案에 귀를 기울이는 인내를 더듬리게  
되는 것 같다. 건축미술史家 Giedon의  
말대로 훌륭한 학자나 지도자는 남의 얘기를  
잘(정성로 인내를 갖어) 듣는 사람이라고  
했듯이 훌륭한 사람들은 많은 代案들을  
소유한 사람이 아닐까.

代案의 原理는 정치적으로 democracy,  
方法論으로는 귀납법에 비유되었나. 한  
면 單案의 원리는 소수지배의 정치이념과  
연역적 방법론에 비유되었나. 전자는 모든  
사람에 맞추는 것이라 후자는 사람을 못에  
맞추는 원리이다. 가까운 예로 미국과 중국  
을 비교 사람들 못 있는 것을 연상해 보면  
대조적으로 이해가 빠르다. 이 두 원리  
는 인간의 가치관과 물질적 윤희성에 대한  
각자의 상이한 見解와 현실적 이해관계에  
따라 편편이 개명되기 마련이다. 개체와  
선체, 수능자와 반능자, 다스리는자와 다스림을  
받는다, 갖는자와 없는자의 二元의 갈등의  
심도는 세상이 복잡해 질수록 특히 이 복잡성의  
증수가 되는 도시문제에서 더 깊어지기 마련  
이다. 이것은 상호 갈등과 이해 상충은  
화해를 사실상 요구하고 있다. 모든 발전상  
과 화해의 세계적 분위기는 삼점적 이라기  
보다 인간의 궁극적 분체에 모두가 공감  
하기 때문이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가 Super-  
star로 승정되는 것은 아타도 신과 인간의

위대한 화해의 중보자 (mediator)로 임하게 된다면 대분이 된다. 그리스도의 처사(神人格)처럼 사법에서 중재자의 자격은 쌍방을 한몸에 지닌듯 쌍방에 친숙하는 것이다. planner의 dilettante적 公事無私(公事無私)보다 아마도 중재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화해에는 희생의 양보가 다르기 마련이다. 십자가상의 희생의 인간이 도리케 신의 사랑을 받아드리는 종교적 화해에서 경험하듯 개체와 전체, 代議(代議)와 單議(單議)의 原理(原理)도 상호 양보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비유컨대 그림을 그린다거나 조각을 한다거나 무엇을 만들때 너무 세부에 치중하다보면 전체 균형을 상실하니 너무 전체 균형에 치중하다보면 세부이 희생되기 마련이다. 스포츠에서 star player와 team work와의 관계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므로 상호의 꾸준한 양보, 협동, 견제가 요구된다. 아마도 이것은 한결같은 사회여론으로 개개인의 개체성과 사회전체의 공동성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화해의 發展(發展)과 成熟(成熟)에서 발전되고 지속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흔히 통탄하고 있을 쓰른하는데 이것은 사회 여론과 communication으로 개체와 개체, 개체와 전체가 호흡을 같이 하는 open society의 有機的(有機的) 榮進(榮進) (organic growth)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 communication이 막힐때 각자의 숨은 끓어지고 기계적 조직화 (regimentation)의 closed society의 비인간화의 도시, 사회, 국가는 불가의 한 것이다. 각 개체가 전체에 참여 기여와 책임을 지는 argument와 hearing이 살아있는 多相的(多相的)의 美(美)를 갖는 代議(代議)의 사회가 아닐까.

손중하느라 가능하다. 이것은 각자의 개성과 가치관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밤이 나와 같기를 바라기는 하되 강요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많은 문제들이 강요에서 오기 때문이다. 개체에의 尊嚴(尊嚴)의 전체 예로 향하는 代議的(代議的) 方法論(方法論)과 전체에의 尊嚴(尊嚴)의 개체에로 향하는 單議的(單議的) 方法論(方法論)의 무열을 따지기 전에 각자의 가치관, 원칙, 견해를 존중한다면 이해의 화해도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Nixon이 북방문시 쌍방의 원칙이 희생됨이 없이 상호 원칙을 존중하므로 화해를 요구한 것이나 모스크 방문시 사기의 露(露)를 밤에게 강요하지는 말자는 세의등은 참으로 아름답다. 우리 모두의 열정이 다르니 개성이 다르듯 우리 사회에도 도시에도 국가에도 이 양양의 美(美), 즉 代議(代議)의 原理(原理)가 살아야 한다. 이것은 混濁(混濁)이 아닌 다양한 실재인 것이다. 동성 불문버리고 남의 代議(代議)를 존중, 밤에게도 기회를 부여하는 양보와 화해의 전신 즉 發展(發展)의 지력이 아쉬운 것이 아닐까. 우리의 多相(多相)한 다양한 현실을 임의로 (자기 고집) 單議(單議)화하여 專橫(專橫)성을 구실로 單議(單議)의 사회를 고집한다면 머지않아 그 단조로움과 조직화에 쉬 천재와 실재를 면치 못하리라. 역시 인간사회에는 어딘가 여유가 있는 신중성과 변화, 그리고 代議(代議)의 새로운 것들이 항상 응당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듣기는 쉬이 하되 말하기는 더디 하나."는 성경구절의 미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



다음으로 화해의 실현은 상호 방정론을 9



# 학생부인有感 ④

노영숙

벌써 결혼한지 1년3개월 이제 조금 주부의 타가 나고 있을까?

항상 지난일은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듯이 결혼초기의 일들이 벌써 하나의 추억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

1강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무척이나 바빴던 것이 지금 같으면 충분히 이해를 했으련만 1년만 해도 처음으로 부모를 떠나 낯선 땅에 온지라 허전한 마음 근황길이 없는데 그야말로 밤 2시 3시도 학교일거나 텅 빈 Apart 방속에서 자선 서랍의 형북스럼던 잠이 그리듯수밖에 결코 눈물이 흐르곤했었다.

그러나 이전 서로 조건이 바뀌어 그야말로 시험을 끝내고 느긋해졌지만 갖춰야 할 것들을 시작하는 나는 정신없이 바쁘기만 하다. 시험을 봐야 있고, 주무노릇을 해야지, Apart도 돌보아야 했지 밤이 되면 딸다라가 바쁘다. 그이 역시 저덕이 들어오면 밥이 다식도록 분주한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이렇게 바쁘고 바쁜 생활이기에 구멍은 더없이 즐기고 행복하다. 특히나 새벽부터 새벽을 싹고 산으로 달려가 하얀 슬로프를 내려오다보면 온갖 잡념은 사라지고 하얀 눈위에 걸터서 어린애마냥 맑은 웃음을 웃기도 한다.

특별 서론과 학생이기에 더 바쁘기도 하지만 깊은 이해가 이루어질 때도 있다. 내가 시험때면 소홀한 아내노릇을 널리알아주는 사랑도 보이며 모든 시험때문에 고심하는 나를위해 영화처럼 시어 외식으로 마음을 전환시켜주기도 한다. 나 역시 그이의 잠을 방해하지 않으려 침실사파르없는 Apart에서 Bath Room에 들어가 공부하기도 하며 ... 이같이 바쁘고 폭풍은

유학생의 아버지이다. 하지만 언젠가 대학시절 친구들과의 여화숙에서 한 친구의 하던 말이 더욱더 내 마음을 흔들어주고 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가운데 그걸 살을까 두려워하는 인생보다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그런 인생을 살고싶다는 생각에 주어진 물건보다는 피나는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더욱 소중하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아직 젊고 젊이있다. 또 무언가를 창조해 보려는 욕망도 있고 ...

나는 그이의 반려자로서 그이가 바라는 목표를 달성 할수있게끔 이해와 사랑으로 도우려 다짐해 본다.

우리의 젊음을 맘껏 즐기면서 한편은 바빠서 더욱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 강한 투쟁을 하면서 -

아마도 언젠날 그이와 나는 따뜻한 불기어 앉아 다양했던 우리들의 젊은날을 생각하며 의미있는 미소를 보겠지! (무 영숙형의 부인)



# "어떤 이야기" 권영길

어느 수필에 실린 이야기다. **某** 대학 교수가 한창 강의에 열중하고 있는 도중에 어떤 학생 하나가 한쪽 팔을 호주머니에 넣고 청강을 하고 있음을 쫓뵈었다. 불래히 여긴 그 교수는 한차례 주의를 주었으나 그 학생은 얼굴만 붉히며 여전히 팔을 호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꽤 심한 생각에 즉시 그 학생 앞으로 달려간 교수의 입에서는 일장 호통이 떨어졌다. 그러나 그 학생은 여전히 묵묵무답. 호주머니에 팔이 들어간 채로 엎고 장내는 순간 천군을 누르듯 무거워졌다. 그제서야 그 옆에 앉아있던 학생이 "선생님, 그 학생은 한쪽 팔이 없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었다.

그때서야 아차 자기의 실수를 깨달은 그 교수는 그러나 침착한 모습으로 천천히 입을 열었다. "X 씨, 교수라는 나도 없는 지식을 머리에서 꺼내 떠돌고 있는데 학생인 자네가 없는 팔이라도 좀 못내 놓을게 무인가." 그 순간 장내는 독소의 도가니로 변하였고 모든 학생은 그 스승의 **機杼**나 **人梯** 앞에 완전히 **壓倒** 당해 버렸다. 대강 이런 줄거리였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너도나도 살다 보면 여러가지 실수를 많이 저지른다. 아니 오히려 실수라는 것이 사람을 더욱 시끄럽이 되게 하여 주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 때 잘하던 못하던 이를 누습해 나갈 수 있어야만 또한 **사람** 속에 끼일 수

있을 것 같다. 가령 예를 들어 개나 닭 같은 동물의 세계에는 이러한 실수의 **習性**으로부터가 없다. 또 Computer와 같은 기계를 예로 든다면 실수를 저지르는 최수는 사람에게 비해 엄청나게 적을 줄 몰라도 일단 실수를 만든 후에는 이를 처리할 능력이 전혀 없다. 이런 점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든 이유 중의 하나가 될지도 모르겠다.

또 같은 사람의 경우라도 실수를 극복하는 방법이 그 사람의 **성**과 **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前述한 대학교수의 이야기에는 우리는 인격의 향기를 냄새 맡을 수 있다. 그러나 정반대의 경우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다. 오히려 이쪽이 그 수가 훨씬 많을 것 같다.

일마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야 했다. 문헌 올림픽에 가셔도 인기를 독차지 했다면 한국민속무용단이 **나.나.나**에서 공연을 한다는 것이었다. 일찌기 한번 구경하고 싶던 욕망도 있던 차라 주선해 힘써주신 분들에게 **내심** 덕이나 감사히 여기며 국민 학생 소풍날 기다리듯 손꼽아 기다렸다. 당일엔 제반사 다 정려 놓고 부푼 기대를 안고 공연장으로 **시** 했음은 물론이다. 예정 시간 보다 몇 십분이 지났어도 늘 있는 일인가 싶어 우리나라 민족성을 살려 나도 역시 은근라 끈기로 버티었다. 드디어 주최측으로부터 인사 말이 있은 후 곧이어 어제가 삼일절인 만큼 기념행사를 치루어야겠다는 얘기였다. 바로 그 전날밤 건물 하나 건너편에서 엄숙히 순국선열의 묘를 뒤 훑어 보았던 처지로는 약간 낯이 갸시럽고 떨 떠름한 기분이었으나 이도 역시 은근라 끈기로 털어 버렸다. 그러나 종래에는 민속공연 무용은 **형편상** 연기 연기 되었다는 (3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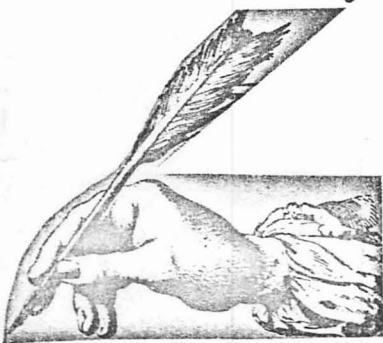
◁ 이 소식 저 소식 ▷

- 이 영재 형 ... 지난 3월 15일 화학 공학 박사 학위 취득. 축하.
- 김 도훈 형 ... 지난 학기 글속공학 석사 학위 취득. 다시 한번 축하.
- 김 흥기 형 ... 지난 3월 22-23 양일간 San Francisco 에게 열렸던 Internat'l Studies Association 학회에서 논문 발표.
- 강 석호 형 ... 최근 Computer Programmer 로 취직. 이세는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하는 중.
- 김 남길 형 ... Intramural Bldg 에서 계속 태권도 교습으로 분주 다망. 거기도 오늘 내일. 오늘 내일
- 박 지용 형 ... 오는 4월 10일 경 귀국 하실 예정.
- 윤 에니 형 ... 법과대학 졸업을 앞두고 King County, Legal office 에서 인턴으로 맹활약 중.

◁ 새로 오신분. 이사하신분 ▷

- 이 영선 양 ... U. of Oregon 에서 새로 오셨음. 전공은 Computer Science.
- 박 건홍 씨 ... 1310 N.E. Boat St. 로 이사 하셨음. 전화는 ME2-0310
- 우 영덕 씨 ... 3726 Brooklyn N.E. 로 이사. ME2-6340
- 서 진영 씨 ... 3826-11th N.E. 로 이사 하셨음.
- 이 영재 씨 ... 3715 Univ. Way #202. ME3-1624.
- 김 기상 씨 ... 3715 Brooklyn N.E. ME2-7323
- 이 영숙 양 ... McMahon Hall #863
- 이 영인 씨 ... McMahon Hall #308
- 최 정민 씨 ... 3828-11th NE #8 ME2-1654
- 조 영 지 ... 모친상을 당하여 LA 이 다녀 오신 형 다시 MBA 과정이 등록하시 었음.

▶ ▶ ▶ 편 집 후기 ▶ ▶ ▶



- ▶ 이번호 부터는 이동 편집실에서 신문을 제작하기로 하고 박건홍 형등을 제 1회 이동 편집실로 칭하고 문선기를 출범했다. 원고정리, 편집, 인쇄를 어너가시 자나로운 신문 제작 과정을 여러 형들이 분담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진서있게(?) 진행 하였다. 박형 내외부의 솜은 공을 높이 평가하여 본보 무한사장은 두분에게 본보 평생 무료 구독권을 증정 할 방침을 다짐하였다.

- ▶ 본보 편집은 앞으로 몇명의 편집위원이 전담하는 구태의연한 방법을 탈피 하여, 우리 학생회도 두루스에게 편집위원 자격을 드려 흥미 느끼게로 같이 모여 이인은 분담하여 협업 하기로 하였다. 이번호는 안들기에 이양녕, 이양호, 이영우, 김홍기, 최서관, 오근호, 김기상, 우재근 제형 등이 수차례 주신것은 박형이 아니겠지 없다.
- ▶ 다음호 큰위하 이동 편집실은 제공하신 분들은 우리 사랑이게 연광해 주시게 바랍니다. 그리고 확보 편집일은 4월 마지막 금요일이 되겠으니, 많이 나오셔서 이 뜻있는 사업에 동참해 주시게 바랍니다.
- ▶ 이번호 4.19 특점으로 기획해 보았으나 목심 대로 잘 되지 못하겠 같은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의 간담은 조연과 타판의 주심이 더욱 진심으로 기대어진다.